

# 결핵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 전북대병원,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지난 22일 병원 본관 호흡기전문질환센터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제9회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핵 예방의 날(매년 3월 24일)을 기념해 열린 결핵 예방의 날 행사는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결핵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내방객들에게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 기침에절안내,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 등을 전달하고 결핵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O.X 퀴즈 행사를 통해 결핵에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설명을 끝까지 듣고 퀴즈에 참가한 내방객들에게는 사은품으로 방역용 마스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2~3주 이상의 기침과 발열, 수면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 및 치료해야한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은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한 호흡기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2일 병원 본관 호흡기전문질환센터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제9회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침예절을 잘 지키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한 호흡기감염 질환으

로 주로 폐결핵을 유발시키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재채기 또는 대변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결핵균에 감염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 농식품부 장관 표창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가 식품의식문화 발전과 한식 경쟁력 강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차경희 교수는 2005년부터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글로벌 한식 전문인재 양성에 공헌하고, 한식 연구 및 제품 개발, 상품화 등의 사업수행을 통해 한식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고(古)조리사 연구에도 참여하며 한식문화의 보전과 전승의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번 공적심사에서 차 교수의 한식 전문인재 양성 공로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는 2010년부터 시행한 다년간의 한식조리특성화사업으로 한식 교육에 최적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식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졸업생 53명이 26개국 36개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재외공관 관자조리사로 진출했다.

전주대 차경희 교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 한식조리학과 전 구성원의 노력 덕분에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식세계화와 글로벌 한식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김제시보건소,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 영양교육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최근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부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교육참여자 3월부터 8월까지(6개월간) 수혜를 받게 되며 쌀, 감자, 당근, 달걀, 콩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매일 패키지로 제공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대상자 204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바로알기', '가공식품 속 영양표시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빈혈, 영양불량, 보충식품 이용 방법'에 대해 개별 상담도 실시하여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보건소 내 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사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교육'도 진행하여 평소 비만, 체중조절에 공감이 있었던 대상자들에게 공감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운영사업 착수보고회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대국민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2019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며 '2019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산림교육 운영은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유아숲체험원 및 국민의 숲 등에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3명, 유아숲지도사 2명)를 배치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통해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전달을 위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어린이집과 연계한 정기형 유아숲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순창경찰서, 청소년보호협의회 정기회의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와 청소년보호협의회(위원장 고재영)는 최근 순창경찰서 3층회의실에서 '청소년보호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청소년보호협의회 신규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바른 학교문화 정착과 학교생활 선도에 앞장서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하며 품행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순창고 김보 학생을 포함하여 총 8명에 총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헌터폭력 근절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학대 및 실종 대응·예방 △청소년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올 한해 추진해야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원형 기자



## 전주대-전북경진원, 공정무역 국제세미나 성료

전주대학교와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은 지난 22일 스타센터 은누리홀에서 공정무역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무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방식으로 사회경제적의 한 형태다.

전주대는 지난 3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학부과정에 개설하고 지역사회에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지원원, 전북도, 전주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여성소비자연맹 전북지회, 전북아이리움협회 등의 기관과 협력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이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공정무역대학 협약을 맺고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소비자운동단체 관계자, 각 시·군의 공정무역 담당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사로 한·일 공정무역 전문가가 초청됐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이강백 위원장과 일본 쿠마모토공정무역위원회 아카시 쇼코(明石祥子) 대표가 참여하여 공정무역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아카시 쇼코 대표는 "공정무역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의 파트너십이며, 소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이다."라며, "공정무역운동의 첫 발을 내딛는 전주대와 학생들이 관심 갖고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중남 로타리클럽, 사랑의 물품 전달식

전주중남 로타리클럽(회장 황규표)은 지난 21일 서완산동 소재 해남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200여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중남 로타리클럽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나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최신 사양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기증했다.

황규표 전주중남 로타리클럽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중남 로타리클럽은 1979년 5월 창립 이래 회원 252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클럽으로서 매년 3억원 이상을 지역사회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예수병원에 첨단의료기기기 탑재된 대형검진차량을 전달하고 안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장애우 지원사업, 모범 중고생 장학사업 등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 단체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새마을부녀회, 부녀후원회 회원 초청 간담회

전북도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선희)는 지난 22일 이준본 연회장에서 부녀후원회(회장 이해희) 회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오경진 명예이사장, 정준모 도새마을회장, 이해희 후원회장, 김선희 부녀회장 등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 했다.

행사에서는 상호 상견례, 성과보고, 영상 시청, '전북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양 단체 사업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백일홍새마을회 후원단체에서는 전북도새마을부녀회에 사업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후원회(일명 백일홍회)는 1982년 5월 도내 지도층 여성 중심으로 조직화된 회원들 구성으로 매월 회의를 통해 꾸준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광역시 초청하여 함께 했으며, 새마을운동 홍보 및 후원활동 사업소개를 했다.

한편, 후원회에서는 3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y-sm포럼 해외봉사단 운영비로 100만원의 협찬금을 지원했다.

/김영태 기자

##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이취임식 행사

고창부안축협이 조합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취임식(김대중)에 대한 약력 및 공적소개 등의 송별행사와 취임 조합장(김사중)에 대한 취임선서와 조합기 전달식, 치사 및 내빈축사 등의 취임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최고령 조합원 하나씩을 모셔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친 두 전/현직 조합장님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엿볼 수 있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조합원들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져 갔다.

제20대 조합장으로 취임하신 김사중 조합장은 부안군 신규신용점포 개설, 축산농가 후계자 육성지원,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여러 공약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소방서, 안전취약계층인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21일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동 독거노인관리사, 생활관리사, 복지도우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의 위급상황 시 안전을 위해 직접 도움 줄 수 있는 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사용방법 ▲안전기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경찰, 신학기 학교 내 성폭력 예방 합동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지난 22일 신학기에 맞춰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스톨 미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성폭력 불안요소를 점검, 선제적 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고창교육지원청, 정선진 강북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매년 신학기에 대폭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점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성범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스톨 미투가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 더불어 불법촬영 유포 및 약물이용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높이고 있어 신학기 초에 적극적인 예방, 대응, 점검을 전개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학교 내 성폭력 예방하고 근절하는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 무주경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총기사고 예방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최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대상자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자율구제단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무주군지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군 전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농작물 피해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